



커피한잔에 희망이 쑥쑥

“잘 할 수 있을 지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기대도 커요.”

중증장애인 왕희령(24)·강승호(24)·신아나(22·여)·장선아(30·여)씨는 자신들이 운영하게 될 커피전문점의 공식 오픈을 하루 앞둔 9월 24일 오전, 매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느라 여념이 없었다.

손님맞이 준비를 마친 이들의 얼굴 표정엔 설렘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토록 원하던 커피전문점을 오픈하게 된 것이다.

커피 바리스타로써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은 모두 4명. 지적장애인인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일배움터’ (원장 최영렬)에서 실시한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참여, 6개월간 이론과 실무를 꼼꼼히 익혔다.

좋은 커피를 제대로 선별해 볶는 방법과 커피를 뽑아내는 추출법, 커피를 멋지게 장식하는 방법 등 커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비롯해 서비스 응대법까지 배우고 경험했다.

커피전문가로 거듭난 이들이 의기투합해 25일 문을 연 커피전문점의 이름은 ‘플로베(flove)’. 꽃을 뜻하는 ‘Flower’와 사랑을 뜻하는 ‘Love’의 합성어로 ‘꽃향기가 피어나는 사랑스런 정원’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



▲제주 최초로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플로베’ 오픈을 하루 앞둔 9월 24일 바리스타로 거듭난 왕희령·장선아·신아나·강승호씨(이상 사진 왼쪽부터)가 손을 들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소 남쪽에 위치한 진빌딩 1층에 자리잡은 플라워 카페 ‘플로베’는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운

로베는 커피 등 20여종의 음료와 케이크, 화훼, 도자기 등을 판매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점 오픈을 준비해 온 임혜영 일배움터 부장은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장애인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제주가 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일배움터는 지적 장애인 35명의 직업교육을 통해 화훼, 농산물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지난해 3억7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

제주 최초 장애인 운영 커피전문점 오픈 일배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영하는 커피전문점이다.

창업 자본금 2억원 중 1억원은 도비와 국비로, 나머지 1억원은 후원금과 일배움터 자부담으로 충당했다.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플

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 커피전문점에는 장애인 바리스타 4명 외에 일배움터 직업재활훈련 교사 2명이 함께 근무한다.

장애인들과 함께 커피전문

도내 1850가구 복지급여 중지

제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 가운데 1850가구가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급여 중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9972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1850가구가 급여 중지 대상으로 파악됐다.

1728가구는 급여가 감소했으며, 1059가구는 급여가 늘어났다. 5335가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급여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5410가구 가운데 급여 중지는 521가구, 급여 감소는 1621가구, 급여 증가는 1054가구, 변동없음은 2214가구였다.

기타 복지 급여수급 4562가구 중 급여 중지는 1329가구, 급여 감소는 107가구, 급여 증가는 107가구, 변동없음은 3121가구로 나타났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민간부문 월접근성 여전해 낮아
시설 탐방-은성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구좌어린이집 창단 공연
섬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주지역 유년비설 디자인 도입 세미나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제주희망봉사단
사랑의 식물기부 추석맞이온정잇따라



10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1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it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 설 · 단 체 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 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어린이 놀이마당	이벤트마당, 놀이마당, 경품추첨 등	14일 인화초등학교 체육관	747-3273
	청소년 성교육 '마법의 성'	건강한 성 바로알기, 건전한 이성교제법 등	6일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747-3273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감성아카데미	학대피해 아동 대상 난타공연 관람	6일 오후 1시부터	712-1391~4
제주시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식·태도, 자살증재기술 교육 등	11~12일 제주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728-4074~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뚝, 뚝, 뚝 힐링여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11일부터 8회 과정	702-0295~6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2년 2차 어머니학교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	10월 10일 ~ 11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725-801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특별강연 '사회복지와 국제협력'	전쟁, 빈곤과 한국사회복지 발전 등	5일 오전 10~12시 협의회 2층	702-3784

민간부문 웹 접근성 여전히 낮아

장애인인권포럼 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 54점
절반 이상은 수준 미달...공공부문은 크게 향상

제주도내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들의 장애인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민간부문 사이트들은 여전히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9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주요 사이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6개 조사 대상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54.3점으로 지난해 평균 점수인 41.4점에 비해 10점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이 중 A등급을 받은 사이트는 23개로 전체의 6.1%에 불과했다. 반면 웹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E, F등급은 각각 162개(43.1%), 79개(21.0%)에 달했다. 대상 사이트의 절반이 넘는 241개(64.1%)가 수준 미달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도내 주요 관공서 30개 사이트의 평균 점수는 80.0점으로 전년보다 20점 가까이 상승했다. 제주도 유관기관 사이트들도 79.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접근

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제주도청, 탐라기록관리소, 제주도교육청 등은 웹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올해는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부문 사이트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사이트가 6.0의 최저점수를 받았다. 병원 부문이 32.1점, 복지시설 부문이 27.9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인권포럼은 "민간부문 사이트 대부분이 웹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이어 "민관을 불문하고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9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들이 난타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민 60% '보편적 복지' 선호

400여명 설문조사 결과...선별적 복지는 40%

제주시민들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장 고은택)가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행정학과)에게 의뢰, '제주시민의 복지의식 및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조사됐다. '가난한 사람이나 취약계층만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를 꼽은 응답자는 39.9%에 불과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20%), '대체로 찬성'(39.4%) 등 찬성 응답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반대'(6.8%), '대체로 반대'(19%) 등 반대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14.8%였다.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의 복지에 대한 책임주체로는 49.9%가 '중앙정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20%), '자기 자신'(16.6%), '가족과 친척'(13.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39.9%), '대체로 낮은 수준'(37%), '대체로 높은 수준'(15.8%)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일반직장인, 대학생 등 4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제주시정신건강센터는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의원과 제주알코올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준혁 제주시정신건강센터장의 '제주지역 자살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강지연 알코올상담센터장의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센터의 역할',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제주지역 자살 사망률은 2007년 24.9명에서 2011년 31.0명으로 6.1명 늘어났다. 제주지역 연평균 자살 사망



률은 30.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제주도에서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꾸리거나 이밖에 자살시도자 안심콜 등록 활성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문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책무와 실태조사, 자살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된다

제주도, 보수체계 일원화·현실화추진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별로 들쭉날쭉한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94%에 머물고 있는 보수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도내 83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0여명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연봉제로 개편을 권고했으나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종전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설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설별 종사자들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장기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실태 조사 및 분석과 공무원 및 종사자 T/F 팀 운영,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시설 유형별로 제각각이던 급여와 직급 체계를 단일화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해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하위직 종사자는 내년까지, 시설장과 1급 종사자는 오는 2014년까지 복지부 권장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종사자 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육성장학금 전액 기부

오현고 정승원군, 남다른 후배사랑

한 고교생이 자신이 받은 장학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화제다.

주인공은 오현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승원군(사진).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정군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받은 120만원 전액을 동



네에 사는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정군은 평소 동네 후배를 위해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등 멘토 역할은 물론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정군은 용담1동에서 추진하는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에 관심을 가져

이번 선행을 결심했다.

행복나눔 통통이는 마을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눔의 미덕을 통해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금품이나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여순 용담1동장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전액을 선행 기탁한 정군의 선행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설탐방

(59)은성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에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할 터”

교육·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결식학생 급식 지원...새터민 특화사업도 시행

‘버팀목’은 사회복지법인 제주은성의 집이 운영하는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환)이 발행하는 소식지 이름이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복지관의 철학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을 9월 19일 찾았다.

제주시 아라2동에 위치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04년 4월 문을 열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222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청소년연습실이,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아동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다. 2층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3층에는 대강당과 무료 예식장, 경로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관은 유아부터, 초·중·고생, 성인,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건강,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우선 초·중·고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면 난타교실과 문화기행, 으뜸탐방, 경제캠프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영어·수학 등 방과후 교실을 비롯해 피아노교실, 플루트·바이올린·난타

교실 등이 있다. 월 수강료는 5만원으로 사설학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위탁을 받아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진로상담,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로대학이 열린다. 한글과 컴퓨터, 건강교실, 교양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이·미용 서비스와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는 한방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관을 찾으면 탁구와 농구, 배드민턴, 당구, 족구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복지관 1층 한쪽에 지역주민을 위한 ‘은성쉼터 무인카페’를 개소, 가족 또는 친구, 이웃끼리 찾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복지관은 새터민을 위한 특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교



육, 자녀교육, 문화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해 일일치집 운영을 통해 번 수익금 전액을 새터민 자녀 20여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김치를 만들어 새터민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다.

복지관은 또 저소득층 자녀와 오한고 학생을 1대 1로 연계해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을 해 주는 멘터링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식 우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2회 부식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 20여명에게는 급식비와 매주 목요일에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고희자 과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726-8388



익명의 독지가 11년째 사랑의 쌀 기탁

제주시 1000포 기탁...총 2억원 넘게 기부

이름을 알리지 않은 한 독지가가 1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사랑의 쌀’을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제주시 1000포 기탁...총 2억원 넘게 기부

이 쌀값은 시중 가격으로

2500만원이 넘는다.

신분을 밝히기를 극구 꺼려한 이 독지가는 지난 13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와 올해 추석부터 쌀을 1000포씩 기탁할테니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독지가는 지난 2001년부터

제주시 일도2동과 화북동에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백미 각각 200포씩 매년 800포를 기탁해 왔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이 독지가가 전달한 쌀은 총 8000포로 시가로는 2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푸드마켓 이용자, 북한이탈주민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쌀을 고루 나눠줬다.

제남아동복지센터, 아트드림 페스티벌 참가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는 8월 17일 한국아동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12년 아트드림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남아동복지센터 아동 17명이 참여해 퓨전 관현악을 선보였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아트드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아

지휘자 이정석씨의 지도 아래 관현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퓨전 관현악을 배워왔다.

행사에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참여해 차임벨 및 핸드벨 연주, 판소리, 합창, 그룹사운드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쳤다.

제남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공연 준비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남아동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행복을 나누는 아라음악회 성황리에 열려



제주시 아라동지역 주민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2012 행복을 나누는 아라음악회’가 9월 21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평초등학교(교장 이신익)와 아라초등학교(교장 한성국),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탁하),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이 공동 주최하고 아라동주민센터(동장 송재근)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아라동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영평초등학교의 오케스타라 공연과 인어어린이집 합창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행복음악회, 3부 초청음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 행사에서는 아라동주민센터 민요동아리의 민요 공연과 아라초등학교 교육미술동아리의 미술 공연, 영평초등학교의 동요메들리,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요공연,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의 댄스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다.



구좌어린이합창단 "희망을 노래해요"

구좌읍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창단공연 개최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 받아

희망을 노래하는 '구좌어린이합창단'이 창단됐다.

제주시 구좌읍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로 구성된 구좌어린이합창단(단장 김남윤 구좌읍장)은 9월 1일 구좌읍주민자치센터에서 창단식을 갖고 첫 공연을 개최했다.

구좌어린이합창단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문화사업인 '토요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해바라기·우리하도·종달지역아동센터 등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은 '저산으로 올라가세' 등 3곡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아동

들은 그동안 전문 지휘자와 안무자로부터 합창과 안무를 배우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김성률 세화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며 "아름다운 하모니가 심금을 울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미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은 "구좌읍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구좌어린이합창단을 통해 아동들이 사려 깊은 인격체로 성장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초청, 작은음악회를 여는 등 중심의 아름다운 하모



▲제주시 구좌읍지역 내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로 구성된 구좌어린이합창단이 9월 1일 구좌읍주민자치센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첫 공연을 갖고 있다.

니를 통해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 관객은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공연모습을 보고 반했다"며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낸

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어린이합창단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인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과 노랫소리가 가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탐라교통봉사대·맥주사업단
제장복에 사랑의 식품 기탁



탐라교통봉사대(대장 박영진)는 9월 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쌀 300포(3000kg)를 기탁했다.

강 지문위원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맥주사업추진단(단장 강정현)은 9월 23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장애인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참치선물세트 30개를 기탁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이미지메이킹 교육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9월 8일 중·고등학교 위탁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진행했다.

'셀프 업(Self Up)'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CS서비스 교육기관에서 의식변화와 소통, 성공적인 이미지메이킹, 자신감 향상 스피치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장애인의 정서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인 '몸 짱(ZZang), 마음 짱(ZZang)'을 10월까지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중재활운동, 요가명상, 율예명상여행, 여가문화체험 등이 운영됐다.

10월에는 여기문화체험과 평가회가 있을 예정이다.

소/식/마/당

장애인부모회, 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9월 19~20일 이틀간 장애인 자녀는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성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성적 관심과 표현에 대한 부모의 대응방법, 건전한 성태도와 가치관 등에 대한 강의와 상담이 이뤄졌다.

서부종합복지관, 지역사회연계 교육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8일 이주민여성과 남편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정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초청해 국적취득, 가족초청 등 이주민여성과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장애인보조기기 전시·체험 행사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9월 11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장애인보조기기 18종을 전시하고 일반인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조장구점검 및 소독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유진재활센터, 워터월드서 수영교실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시설(원장 최은미)은 올해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월 17일 서귀포시 워터월드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다양한 물놀이시설을 이용해 물놀이체험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혜원, 신나는 여름캠프 실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대표이사 이홍기)은 8월 22~23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안덕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신나는 물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아적십자가족봉사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통돼지 바비큐를 제공하는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줬다.

미리내봉사단, 소망요양원서 매월 공연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예술포럼사단 미리내봉사단(단장 최금순)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소망요양원을 찾아 전통 춤과 노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춤과 노래를 선사하는 봉사단의 가무를 볼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흥겨운 표정을 지었다.

섬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제주시지역 8개 종합사회복지관, 우도 방문
이·미용·발마사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9월 20일 우도지역에서 섬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운영된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민요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 의체는 제주시와 공동으로 9월 20일 섬으로 찾아가는 '희망마차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은 복지서비스와 문화 소외지역인 섬

속의 섬 '우도'로, 행사에는 제주시지역 8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했다. 이동복지관 운영을 위해 세탁차량과 목욕차량, 밥차도 동원됐다.

행사에 참여한 70여명의 복

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미용 서비스와 발마사지, 이동목욕 봉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민요공연과 노래자랑, 투호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 의체와 제주시는 올해 우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추자지역을 찾아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됐던 도서지역 노인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섬 지역을 찾아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실 있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소외계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리 모두 동참해요"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현고서 캠페인 전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9일 오현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오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운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아이의 사례를 보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면서 "앞으로 친구들과 심한 장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주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9월 13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현경훈)와 연계해 구좌읍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 70명을 초청, 어르신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삼춘 놀래가게 마썸'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이날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 미술공원을 비롯해 아쿠아플라넷 관



람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화관광지를 둘러봤다.

거동이 불편해 문화체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는 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휴양림서 꽃자왈생태교육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은 9월 22일 아동복지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에서 꽃자왈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꽃자왈공유화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아동지도방법 실습과 꽃자왈 탐방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꽃자왈 생물과 환경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코칭 프로젝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성교육·심리치료 교육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역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코칭 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전문 강사를 초빙,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성교육과 심리치료 교육이 진행된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사춘기 시기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자기이해와 조절, 청소년기에 꼭 지켜야 할 이성교제 방법 등이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발견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검다리 가족봉사단발대식 개최

서귀포시장장애인부모회 부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8월 16일 아간돌봄센터교육실에서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징검다리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귀포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가족봉사단은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좋은인연봉사회, 어르신 생신잔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체인 좋은인연봉사회(회장 고영봉)는 9월 20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요양원을 방문해 9월 생신을 맞은 시설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봉사회는 이날 떡케익과 과일 등으로 생신상을 정성껏 준비하고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다. 봉사회는 매월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잔치를 열 예정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9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79kg ▲김치원=김치 41kg ▲구암굴사 제불자일동=쌀 48,25kg ▲빵따아모=빵 21봉 ▲삼다유통=삼다수(2L*6개) 300팩 ▲서문식품=두부 384모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멸치10kg ▲이어드지역자활센터=유기농쌈아재 9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500ml*20입) 150팩 ▲뉴월드마트서사라점=김4상자 ▲무기명=치약 14개, 비누 41개 ▲산방미곡=쌀 500kg ▲섬오름동호회=쌀 130kg ▲작은세상봉사단=쌀 120kg ▲제주해양경찰서=고추장,된장 224kg ▲청룡수산=고등어 100kg, 참굴비 100kg, 갈치 100kg ▲파라바게트동광초점=빵 245봉 ▲이명구씨=쌀 600kg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쌀 600kg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쌀 1000kg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530,000	53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50,000	350,000
복지사업후원	1,025,000	288,000
푸드마켓후원	2,930,000	766,8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빈부격차와 경제민주화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을 촉진하여 능력에 따라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주거, 노동환경의 열악, 고용, 실업문제 등 많은 병폐가 나타난다. 이는 자본주의 역기능으로 귀결되고, 부자와 빈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현대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부를 침탈당한 자들의 박탈감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민초들 소외감 극에 달해

미국에서 ‘소의계층의 부를 침탈해가는 가진 자’와 ‘경제침체의 책임이 큰 투자은행들에 대한 항의’를 시작으로 자본주의체제에 집단으로 강력항거한지도 1년이 되었다.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는 소식

도 들린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때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지원하여 회생된 금융권에 대한 시각이 싸늘하다. 은행에서는 130여 종류의 수수료수입이 수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영세업자들은 금융카드 결제 수수료가 높다고 아우성이고, 백화점입점 중소기업들은 입점수수료에 등골이 휘고 있다고 한다.

소수에 편중된 부와 독과점, 가진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자본주의체제의 역기능으로 민초들의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여 무한경쟁체제를 방임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수평적 평등실현은 요원하다. 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 시장(市場)이 결정하는 시스템에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이념은 공, 사법의 중간영역인 사회법으로 귀결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본주의 역기능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대선정국을 맞아 대통령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온도는 다르지만,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서민들은 환호하며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과 적극적인 실천이 녹록치 않겠지만, 부디 득표를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강력한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부의 편중이 해소되고 복지사회의 확 달라진 세상을 기대한다.

복지도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이분법적인 제로섬게임은 곤란하다. 국가재정과 제반 경제체제를 심층 고려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선거 득표를 위한 空約이 아니길...

어느 나라든 빈부의 격차는 존재한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못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수평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위정자의 몫이다. 사회 복지확대, 독과점 규제, 이자제한법,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기업형 마트 규제 등 제도개혁이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부의 편중심화와 사회안전망은 미흡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화된 사회주의이념을 도입하는 사회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가일층 진보된 법과 제도를 통해 분배정의 실현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를 기대한다.

시론

청소년이란 새싹을 틔우기 위해...

선선한 날씨가 피부로 전해져 오는 완연한 가을이다. 우리는 이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한다.

한 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내년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올 한해 청소년 사업도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내년사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날씨의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언제 어떤 농작물을 심고 무슨 비료를 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정부정책과 제주도의 환경에 따라 내년사업의 방향기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우리도가 추진한 청소년 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의 계획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우리 도는 올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프라 구축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80여억 원을 투자하여 21세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먼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과 체험 봉사 지원은 물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8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을 보조하고, 산지천에서 문화존을 연 19회 운영하여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도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집단 상담지원을 337회 4,045명에 대해 추진하고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도내 178개 유관기관에 대한 연계도 강화시켰다.

셋째, 청소년인프라에 대한 시설확충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및 아영장 등 기능 보강과 확충에 6개소 14억1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따라서 내년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개정시행 중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국립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뛰어난 조타수가 있어도 실제로 배를 젓는 선원들이 없다면 배는 출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많은 선원이 있어도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배는 길을 잃는다. 우리도에서는 우리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제주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라는 말이 슬로건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도 청소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변 태 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기고

행복한 가정, 복지로 가는 사회



한 복 섭

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동제주동분회장

구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흐드러진 여색꽃 황금불결이 일렁이는 가을이 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을과 더불어 성숙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를 살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간다.

가정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쉼터이다.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되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고 봄이 오면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 사업이 잘되고 그러한 일들이다. 어

떤 설문에 답한 사람들의 96%가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은 온 인류가 바라는 조건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므로 불행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한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의 상담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가정이 서지 못한 사회에 제대로 사랑을 양식으로 먹고 나가야 하는데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 사랑은 저수지, 샘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요즘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학교 폭력사건, 어린이의 성폭력 사건,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보험에 들어놓고 자기의 가족을 저버리고, 아니면 돈 때문에 철모르는 아이를 납치하여 괴롭

히는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독버섯으로 만든 요리를 먹여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 ‘네로’를 황제를 만드는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네로’는 ‘로마’의 불타는 시대를 보면서 환희에 잔인함,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요소가 돈,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사랑의 속성, 우월성은 그만큼 우월한 것이며, 열정적인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 인간이 교만해서 그렇다.

사랑은 첫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떠나서... 관대하여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를 품지 말아야 한다. 해가 저물도록 말이다.

사랑은 신뢰하는 의심하지 않은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날 현대 가운데, 가정의 위기에 서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며 진정 사회복지로 가는 길이다.

❖ 제주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및 확산 방안 세미나

“누구나 쓰기 편리한 디자인 도입해야”



▲9월 1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주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및 확산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방청객들이 주제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령·성별·장애유무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 제주도, 공공시설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은 안전도시와 건강도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할 디자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제주국제대학교 이인호 교수(디자인학과)는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 주최로 9월 1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주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 및 확산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유니버설 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이란 연령이나 성별, 신체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용어는 미국의 건축가이자 공업디자인사인 론 메이스가 1985년 ‘다지이너스웨스트’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디자인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 교수는 “오늘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나 노인을 위한 특정 지침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건축물의 접근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사용자를 일반인과 차별화하는 디자인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시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교수는 “현재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격리되어 설치된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반인과 통합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박탈하는 모순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의 장애인 통합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두 특별히 취급돼 구분되거나 격리된 탓에 오히려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보다는 활동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모든 편의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된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는 “소수 특정인을 구분지어 배려하려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연령, 장애, 건강상태 등의 차이를 가졌다는 이해의 틀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이나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변화하는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지원 가능한 건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창 UD랩디자인이즈(Lab/design is) 대표도 ‘장애인 전용’이란 단어는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전용’이란 단어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 전용이 별도로 있어 장애인이 특별대우를 받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부담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전용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오르

내릴 때 그 장애인이 특별대우를 받고 있어 즐겁다고 느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유니버설적인 생각은 누구단을 위한 제품과 환경,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라며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이 유니버설적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노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차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교통약자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규정, 공공건물을 비롯해 버스승강장, 보도, 안내표지판, 가로시설 등 각종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적 철학은 첫째, 사용하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며, 둘째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시장성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정보 이용의 용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등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문화활동, 서비스방법에서부터 제품, 건축, 교통, 시설 등의 생활기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 (8)제주의민봉사단

“낡은 집 고쳐주고 이웃사랑 실천해요”

어려운 이웃 위해 11년째 사랑의 집 수리 봉사

지금까지 200여가구 새 단장...나눔·선행 베풀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낡은 집도 고쳐주고 이웃사랑도 실천해요.”

집 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제주희망봉사단(단장 김성주). 사실 봉사단의 시작은 미약했다. 지난 2002년 9월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 몇몇이 모여 친목 도모 겸 봉사단체인 ‘화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일명 ‘화사모’를 결성했다.

비록 회원 수는 적었지만 매달 거르지 않고 집 수리 봉사 활동을 다녔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찾아 도배며 장판 교체, 지붕 수리, 보일러 설치, 페인트칠 등 집 안팎을 말끔히 수리했다.

지난 2006년 9월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을 찾아 주변 정리를 도왔고 그 이듬해 9월 태풍 ‘나리’가 제주를 덮쳤을 때는 화북동과 함덕리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단 명칭을 ‘화사모’에서 ‘제주희망봉사단’으로 변경한 것은 2009년 1월. 화북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봉사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화사모’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봉사단의 회원 수는 230여명. 이중 봉사활동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회원은 40여명 정도다.

이들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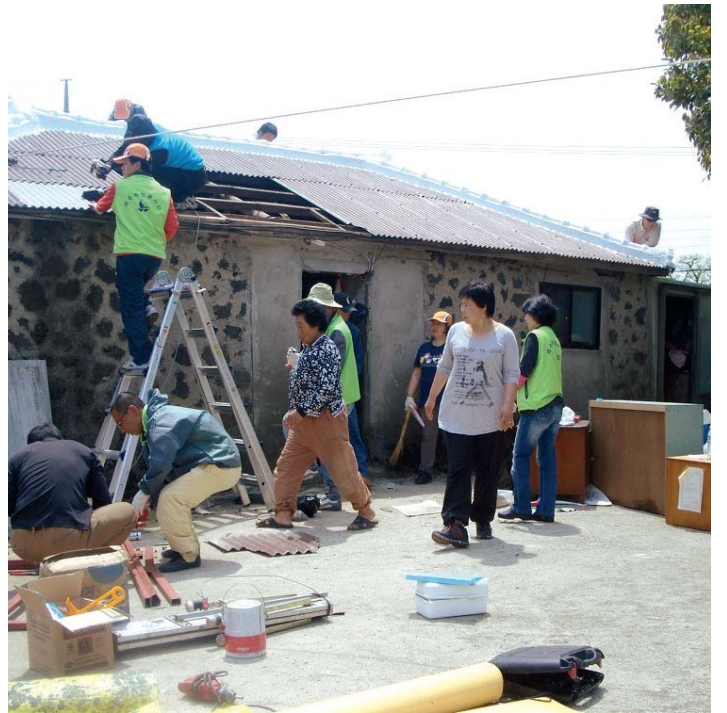
에 2개팀으로 나눠 정기 봉사 활동을 한다. 또 비정기적으로 매월 2~3회 집 수리 봉사에 나선다.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답사는 기본이다. 어떤 곳을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꼼꼼히 점검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리 작업에 들어간다.

집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각종 물품 구입비는 도비 보조금과 후원금,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외 계층의 집을 수리해 준 가구만 해도 어렵잡아 200곳이 훌쩍 넘는다.

집 수리 전문 봉사단으로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집만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매년 추석이 돌아오면 김치와 밀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가구에 나눠주고 연말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과 선행을 베풀고 있다.

또 해마다 화북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문화탐방 기회



▲집 수리 전문봉사단체인 ‘제주희망봉사단’ 회원들이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를 제공하는가 하면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교통도우미 봉사에도 참여한다.

마늘이나 감귤 수확철 등 농번기 때는 바쁜 일손을 조금이라도 거들기 위해 농촌봉사활동을

떠난다.

김성주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4)온정릴레이

추석 맞아 푸드마켓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각계에서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의 쌀 등기탁

식품나눔 운동에 동참...저소득층에 무료 전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식품 제조·유통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상설 매장이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회장 박형수)은 9월 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푸드마켓에 사랑의 쌀 120kg을 기탁했다.

쌀 도매업체인 산방미곡(대표 오영봉)은 9월 12일 쌀 500kg을 기부했다. 산방미곡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해마다 쌀을 기탁하는 등 식품나

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후원업체다.

섬오름동호회(회장 변문찬)도 9월 20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30kg을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준역)도 식품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제주해경은 9월 21일 푸드마켓을 찾아 고추장과 된장 224kg을 전달했다. 현길홍 제주해경 경무기획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암굴사제불자들도 이날 푸드마켓에 쌀 48kg을 기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에도

라면, 된장, 간장, 쌀 등을 기부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과장 강철수)와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김인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쌀 1200kg, 1000kg을 푸드마켓에 각각 지정기탁했다.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인 (주)청룡수산(대표 문영섭)은 9월 26일 고등어, 참굴비, 갈치 등 13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많은 후원자들이 푸드마켓 계좌를 통해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후원금은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인 푸드마켓은 제주시 일도2동 옛 한국산업인력공단 1층에 위치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758-1377로 문의하면 된다.

